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개선 방안

박 경 철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kcpark@cni.re.kr

본 연구의 목적은 1993년 이후 제정 운영되어온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을 현재의 농업·농촌의 여건과 충남의 주요 도정 과제와 연계해 개선하는 데 있음. 특히,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도정 주요 과제인 3농혁신 정책 추진과 연계해 시상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

CONTENTS

1. 연구배경
2. 시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 타 지자체 시상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4. 개선 방안
5. 결론

요약

○충남도 농어촌발전상은 농업인의 자긍심과 농업·농촌의 가치를 고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와 충남도 농정 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의 현황과 문제점, 타 지자체의 시상 현황, 농정의 여건 변화 등을 참고해 다음과 같이 시상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첫째, 기존의 작목부문, 시책부문, 지원기관, 관련단체, 특별상 부문 등 5대 시상 부문을 충남도 3농혁신 정책의 방향 및 목표와 연계해 생산혁신, 유통혁신, 먹거리혁신, 지역혁신, 인력혁신 등 5대 부문으로 재편함.

○둘째, 작목 중심으로 편중된 기존의 시상제도를 농어업·농어촌 각 분야로 확대하고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시상도 개인 및 담당 팀으로 제한해 농어촌발전상의 가치와 대상을 명료화함

○셋째, 기존의 “충남도 농어촌발전상”의 명칭을 향후 “충남도 3농혁신상”으로 변경해 충남도 3농혁신 정책의 취지와 목표를 이 상을 통해 구현해 나감.

○마지막으로, 정량화된 양적 평가항목을 가급적 줄이고 객관적인 현장평가 등을 통해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소신과 성과, 지역사회와의 공동 발전을 위한 활동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함

01 연구배경

●충남도는 1993년 3월 <충청남도 농어촌발전대상 운영조례>¹⁾ 제정 이후 2017년까지 충남도 농어촌 발전에 기여가 큰 농어업인에게 농어촌발전상을 수여해 옴.

-충남도는 농어촌 현장에서 남다른 열정과 신념으로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해 온 숨일 일꾼을 발굴해 농어촌발전상을 시상함.

-이로써 농어업인과 농어업 관련 기관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활력 있는 농어촌을 만드는 데 동기를 마련해 줌.

●하지만 현재의 농어촌발전상은 농업 및 농촌 인구의 감소, 고령 농업인의 증가 등 농어업·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현재 농어업 인구의 과소·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발전상의 일부 부문은 다소 세분화되어 있어 해당분야 수상자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함.

-또한 5개의 시상부문(작목, 시책, 지원기관, 관련단체, 특별상)이 변화되는 농어업·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음.

●특히, 충남도 농어촌발전상이 충남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의 주요 방향과 정책과도 연계가 미흡해 이 상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민선 5, 6기 동안 충남도가 역점으로 추진한 3농혁신의 5대 부문은 생산, 유통, 소비, 지역, 역량 혁신이었음.

-민선 7기에도 3농혁신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에 민선 7기의 3농혁신 정책 방향 및 실천과 연계한 농어촌발전상 제도 개선이 필요함.

1) 2017년 2월 28일 <충청남도 포상조례>가 개정되면서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은 폐지됨.

02 시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시상 현황

- 충남도 농어촌발전대상은 조례 제정 당시 64점(본상 5, 부문상 59)이 수여됐으나 이후 2차례의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5개 부문 15점이 수여되고 있음.
- 2017년 현재 농어촌발전대상은 작목부문 8명, 시책부문 3명, 지원기관 1점, 관련단체 1점, 특별상 2명이 수여됨.
- 농어촌발전 대상 수상자는 5개 부문 중 작목과 시책 부분에서 한 명을 선정해 수여하고 대상 수상자의 해당 부문 수상은 하지 않음.
- 충남도 농어촌발전대상 시상 부문, 부문별 수상자 수, 세부 부문별 수상자 수는 다음 <표 1>과 같음.(2017년)

<표 1> 충남도 농어촌발전대상 시상 내용(2017년)

부 문	수상자 수	부문별
작목부문	8명	• 식량작물 1, 원예특작 3, 축산 2, 수산 1, 임업 1
시책부문	3명	• 환경농업 1, 수출 1, 유통가공 1
지원기관	1점	• 농협·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관련단체	1점	• 농업관련 단체 등
특별상	2명	• 특별공로, 귀농·귀촌, 다문화가정 등

*자료: 충남도(2017). 『제25회 충청남도 농어촌발전대상』 시상식 개최 계획.

- 1994년부터 2017년까지 농어촌발전상을 수상한 자는 573명에 달함

- 1994년 제1회 시상식을 시작으로 2017년 제25회 시상식까지 충남도 농어촌 발전에 공로를 인정받아 농어촌발전상을 수상한 자는 전체 573명에 달함.
- 역대 대상 수상자와 수상 분야를 보면, 식량작물(쌀) 분야가 9회로 가장 많았고, 축산 분야 5회로 두 번째를 차지했음.
- 다음으로 원예와 환경농업 분야가 각각 3회, 수산과 수출 분야가 각각 2회, 그리고 임업 분야가 1회 순이었음. 농어촌발전상의 역대 대상 수상자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음.

<표 2> 충남도 농어촌발전상 역대 대상 수상자 내용

회 수	성 명	품 목	주 소
1	이 성 구	쌀	부여군 규암면 부여두리
2	최 근 학	원예(체소)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3	최 상 준	쌀	청양군 정산면 용두리
4	박 종 환	쌀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5	김 영 수	쌀	부여군 홍산면 조현리
6	문 정 우	축산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7	김 창 선	쌀	당진군 합덕읍 점원리
8	남산양계영농조합법인	축산(양계)	공주시 탄천면 남산리
9	권 오 영	과수(사과)	예산군 웅봉면 증곡리
10	최 덕 환	화훼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11	홍성환경농업마을영농조합법인	환경농업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12	남 성 현	축산(양돈)	아산시 신창면 궁화리
13	장 인 관	쌀	당진군 우강면 대포리
14	박 형 규	수출	논산시 부석면 반송리
15	최 중 생	축산	서천군 서천읍 동산리
16	송산농협협동조합	수출	당진군 송산면 삼월리
17	이 종 수	쌀	아산시 남동 70-5
18	편 현 숙	수산	보령시 오천면 삼시도리
19	박 광 욱	축산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20	구 철 완	환경농업	서천군 마서면 계동길
21	남 우 용	쌀	당진시 대호지면 4.4만세로
22	백 승 운	임업	보령시 미산면 뜨매기골길
23	임 응 철	환경농업	홍성군 장곡면 홍장남로
24	이 대 근	쌀	홍성군 장곡면 홍남동로
25	김 필 성	수산가공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2길 151-8

*자료: 충남도(2017). 『제25회 충청남도 농어촌발전대상』 시상식 개최 계획.

2. 현 시상제도의 문제점

- 충남도 농어촌발전상 5대 시상 부문의 분류가 모호하고 편중되어 있음.
 - 5대 부문 가운데 작목부문의 수상자 수가 전체 15명 가운데 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시책부문이라는 용어가 다소 모호함. 농업농촌 관련 시책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본 시상제도에서 환경농업, 수출, 유통가공 분야로 특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지원기관, 관련단체를 별도의 부문으로 특정하는 것도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작목부문의 부문별 수상 분야가 세부 작목 위주로 편중되어 있음.
 - 부문별 세부 수상 내용을 보면, 식량작물 1명, 원예특작 3명, 축산 2명, 수산 1명, 임업 1명으로 다소 세분화되어 있음.
 - 특히, 원예특작은 3명, 축산은 2명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원예특작의 경우 최근 농업인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해당 농업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 적합한 수상자를 찾기도 어려운 상태임.
- 심사를 위한 평가기준표가 지나치게 정량화, 규범화되어 있음.
 - 부문별 심사 평가기준은 다르지만 지원기관, 관련단체의 평가기준표가 지나치게 정량화, 규범화되어 있어서 정형화된 평가를 넘어서기는 어려운 상태임.
 - 더욱이 평가기준표가 지나치게 세밀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기관과 단체의 경우 이 상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태임.
- 기관과 관련단체에 대한 수상이 과도한 상태임.
 - 5대 시상 부문을 보면, 지원기관(농협·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과 관련단체(농업관련 단체 등)에 대해 각각 1곳씩 시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원기관 및 관련단체에 대한 시상은 충남도 농정에 대한 이들 기관의 협력 및 참여를 유도한 데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공적 내용과 대상의 모호함으로 인해 시상에 대한 효과와 지속성은 미지수임.

03 타 지자체 시상제도 현황 및 시사점

1. 타 지자체 시상제도 현황

- 타 지자체의 농어업 시상제도는 명칭과 시상 분야 모두 다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 농어업·농어촌 관련 시상제도의 시상명의 경우 강원도는 농어업대상, 경기도는 농어민대상, 경북도는 농어업인대상, 전남도는 농업인대상과 어업인대상이 분리되어 시상하는 것으로 조사됨.
 - 시상 분야 역시 강원도는 7개 분야, 경기도는 15개 분야, 경북도는 10개 분야, 전남도의 경우 농업인 분야는 6개 분야, 어업인 분야는 4개 분야인 것으로 조사됨

<표 3> 타 지자체 시상 분야 및 내용

회 수	강원도	경기도	경북도	전남도
시상명	강원도 농어업대상	경기도 농어민대상	경북 농어업인대상	전남 농업인대상
시상분야	<7개 분야> 작물경영 친환경농업 수출유통 축산발전 산림경영 수산진흥 미래농업육성	<11개 분야> 고품질 쌀 생산 과수, 화훼, 채소 농촌융복합산업 환경농업·신기술 수산, 임업 여성농어민 식량작물, 특용작물 한우, 낙농, 양돈, 가금 및 기타 가축	<10개 분야> 식량생산 친환경농업 과수화훼 채소, 수출 농수산물가공유통 축산, 수산 농어촌공동체활성화 여성농업인	<6개 분야> 고소득쌀생산 원예특용작물 유통가공 수출 축산 임업
수상자 수(명) (2017)	7	15	11(각 분야+대상)	5
특징	<기업형 새농촌 우수마을> 시상식을 겸함 (29개 마을, 2017)	2017년부터 15개 부문으로 확대, 각 부문별 1명 또는 1개 단체 수상	전체 대상은 별도 수여, 수상자에게는 부부동반 해외연수 기회부여, 소요 비용은 도비50%+지역농협본 부50%로 충당	2004년부터 어업인대상 시상제 도입(어업어선, 수산양식, 유통가공, 수산물수출 등) *단, 수상자 수를 특정하지는 않음

● 타 지자체 시상 분야의 구체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 강원도: 작물경영, 축산 등 일반적 농수산업 분야 이외 미래농업육성 분야가 있는 것이 특성임. 또한 <강원도 농업인대상> 시상식과 아울러 <기업형 새농촌 우수마을> 시상식을 같이 거행하고 있음. <기업형 새농촌 우수마을> 시상은 도약마을과 선도마을로 나뉘며 도약마을로 선정될 경우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그중 3억 원은 선정 연도에 우선 지원하고 선정 3년차에 지속가능성과 현실성 등을 종합평가해 나머지 2억 원을 추가로 지원함. 선도마을은 선정 연도에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한꺼번에 지원함. 2017년의 경우 도약마을은 총 24개 마을, 선도마을은 총 5개 마을이 선정됨.
- 경기도: 전체 시상 분야가 11개로 다른 지자체보다 시상 분야가 많은 편임. 특히, 농촌융복합 사업 분야는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분야이고 축산 분야가 한우, 낙농, 양돈, 가금 및 기타 가축 부문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또한 여성농어민 분야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각 부문별 1명 또는 1개 단체로 대상 폭을 확대한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 경북도: 전체 10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음. 그중 농어촌공동체활성화 분야는 다른 지자체에 없는 경북도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 전남도: 전남도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농업인과 어업인 수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현재 지자체뿐만 아니라 농어업 관련 기관 혹은 단체에서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혹은 단체에 시상을 하고 있음.

- **대산농촌문화상**: 1991년 우리 농업과 농촌 발전에 크게 공헌한 분들의 업적을 기리고 귀감으로 삼아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제정한 상으로 우리나라 농업계의 최고 권위의 상으로 평가되고 있음.(대산농촌재단 홈페이지)

<표 4> 대산농촌문화상 시상 분야 및 내용

부문	시상 대상	시상 내용
농업기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기술 개발·보급으로 농업 발전과 농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인사	상패와 상금 5천만 원
농업경영	모범적 농업경영으로 농업·농촌의 발전을 이끌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한 인사	
농촌발전	농촌의 환경과 문화유산 보존·계승, 교육·문화·복지 등 농민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드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한 인사	상패와 상금 2천만 원
농업공직	농업·농촌정책 입안 및 농업기술 개발·보급·농촌공동체 활성화 등에 헌신하여 농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농업 공직자	

*주: 수상자는 부문별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단체를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음. 단, 단체는 수상공적과 관련한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팀 단위로 제한함.

*자료: 대산농촌재단 홈페이지 「대산농촌문화상 시상」

- **한사랑농촌문화상**: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우리 농업, 농촌문화발전에 헌신하면서도 세상의 주목이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숨은 애국자들을 발굴해 격려하고 귀감으로 삼음(한사랑농촌문화재단 홈페이지)

<표 5> 한사랑농촌문화상 시상 분야 및 내용

부문	시상 대상	시상 내용
식량자원	농촌현장에서 타의 모범적이며, 특히 식량자원 부문에 영농성과를 거둔 인사 또는 단체	대상 1명 상패와 상금 2천만 원
원예작물·축산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에 관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신기술 도입을 통해 영농성과를 거둔 인사 또는 단체	
농촌지도봉사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농민을 지도 계몽하면서 농업기술개발 보급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농업공직자	각 부문 상패 및 상금 1천만 원

*자료: 한사랑농촌문화재단 홈페이지 「한사랑농촌문화상」

2. 시사점

● 농촌마을 또는 농촌공동체 활성화 차원의 시상 필요

- 강원도의 경우 <기업형 새농촌 우수마을> 시상식을 별도로 갖고 대상 마을에 대해 3~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 경북도의 경우 농어촌공동체활성화 분야를 통해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서 수상을 하고 있음.
- 강원도의 <기업형 새농촌 우수마을> 시상 방식은 충남도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즉, 충남도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차원에서 사업비자 지원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농어촌발전상 시상식 때 함께 사업비를 수여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경북도의 농어촌공동체활성화 분야의 시상처럼 충남도 또한 농어촌체험마을, 도농교류 등 마을활성화에 기여가 큰 개인 혹은 단체에게 시상을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여성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시상 필요

- 강원도의 경우 미래농업인 육성 차원에서 미래농업육성 분야를 마련해 청년농어업인에게 시상하고 있음.
- 또한 경기도와 경북도의 경우 각기 여성농어민 분야와 여성농업인 분야를 마련해 농어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을 배려한 시상을 하고 있음.
- 충남도는 아직까지 여성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별도의 시상 분야를 마련하고 있지 않

는 만큼 경기도와 경북도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수산업 분야의 시상 보완 필요

- 전남도의 경우 2004년부터 농업인 분야와 어업인 분야로 나누어 시상을 진행하고 있음.
- 충남도의 경우 전남도 못지않게 수산업(어업) 분야의 비중이 크고 갈수록 수산업의 중요성과 비중도 커지고 있는 만큼 수산업 분야의 시상 보완이 필요함.
- 하지만 전남도의 경우와 같이 수산업 분야 시상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는 없고 시상 분야를 기존의 1분야에서 향후 2개 분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인 수상을 원칙으로 하되 단체 수상의 경우 공적이 뚜렷한 실무 담당 조직(팀) 단위로 한정화 필요

- 대산농촌문화상의 경우 수상자는 부문별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단체에 대해 시상을 함. 하지만 단체의 경우 수상범위가 넓으면 그 관심과 의미가 퇴색될 수 있어 수상 공적과 관련한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팀 단위로 제한함.
- 농업계의 최고 권위로 평가되는 대산농촌문화상이 부문별 1인을 시상 원칙으로 하는 것은 훌륭한 리더가 결국 농업과 농촌 발전을 선도한다는 믿음에 기인함. 또한 시상 대상을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농업과 농촌 발전에 더 큰 사명감과 기여를 기대하는 차원이기도 함.

04 개선 방안

1. 기본 방향

● 농업농어촌 발전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필요

- 농업농어촌 발전은 기존의 농업 분야의 생산, 유통, 판매이라는 일반적 농업 개념에서 벗어나 농어촌의 의료, 복지, 교육, 환경, 교통, 도농교류 등 통합적 접근이 이뤄질 때 가능함.
- 유럽, 일본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에서도 농정의 방향을 농업에서 농어촌으로 전환해 농어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통합적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따라서 충남도의 농어촌발전상은 농업 관련 분야에 집중했던 기존의 시상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농어촌 전반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혹은 단체에 수여할 필요가 있음.



<그림 1> 우리나라 농정패러다임의 전환

*자료: 충청남도, 2017. 충청남도 3농혁신 3단계 추진계획(2019~2022)

● 충남도 3농혁신 정책과 연계 필요

- 충남도에서 민선 5,6기 동안(2011~2018) 추진해온 3농혁신 정책은 한국지방정부정책대상(2014), 농식품정책상 대상(2017), 대한민국성공브랜드대상(2017) 등을 수상해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농업정책이나 농정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충남도 3농혁신 정책은 1단계(2011~2014), 2단계(2015~2018), 3단계(2019~2022)로 나뉘며 각 단계별 비전과 목표는 유사하지만 세부 추진사업과 이를 위한 추진 조직은 다소 차이가 있음.
- 이처럼 민선 7기에도 3농혁신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만큼 충남도 농어촌발전상도 이와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3농혁신 정책을 추동할 필요가 있음.
- 3농혁신 정책의 각 단계별 사업 기간, 세부 부문, 추진 사업 내용은 다음 <표 6>과 같음.

<표 6> 충남도 농어촌발전상 역대 대상 수상자 내용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구분	2011-2014	2015-2018	2019-2022
세부 부문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희망마을 만들기 도농교류 활성화 지역리더 육성	생산혁신 유통혁신 소비혁신 지역혁신 역량혁신	제도혁신(농정제도) 인력혁신(농업인력) 먹거리혁신(지역먹거리, 농업연구개발) 유통혁신(시장유통) 지역혁신(농어촌산업, 농어촌마을)
추진 사업	30대 중점사업	15대 전략과제 50대 중점사업	25대 핵심중점사업
추진 조직	5개 사업단 18개 TF팀	9개 추진단 20개 팀	미정 (충남농어업회의소)

2. 개선 방안

● 기존 5개 부문의 시상 분야를 3농혁신 2, 3단계 부문과 연계해 5대 혁신 분야로 재편

- 기존의 5대 부문, 즉 작목부문, 시책부문, 지원기관, 관련단체, 특별상을 3농혁신 5대 혁신부문으로 재편
- 5대 혁신 부문은 다음과 같음: 생산혁신, 유통혁신, 먹거리혁신, 지역혁신, 인력혁신
- 5대 혁신 부문별 수상자 수와 부분별 수상 내역은 다음 <표 7>과 같음.

<표 7> 충남도 농어촌발전대상 5대 혁신 부문별 시상 내용

(단위: 명)

부 문	수상자 수(점)	시상 분야	참고
생산혁신	3	•식량작물, 원예특작, 축산, 수산, 임업, 친환경	식량작물(쌀 등)은 농업생산 및 중요도를 감안해 고정으로 1점을 수여하고 그 외 분야에서 2점 수여
유통혁신	2	•유통, 가공, 수출	기존의 시장 유통 중심임, 수산물도 포함
먹거리혁신	2	•로컬푸드, 학교급식, 공공급식, 식생활교육	로컬푸드는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차원으로 접근 필요
지역혁신	2	•마을만들기, 도농교류·농어촌체험,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농어촌복지	기존의 마을만들기 이외 도농교류, 농어촌복지 포함
인력혁신	2	•농어업교육, 청년농어업인, 여성농어업인, 귀농·귀농어촌, 다문화가정	농어업교육, 청년여성 농어업인 포함

* 부문별 수상자 수(점)은 공적 수준에 따라 추가 혹은 감소 가능

● 충남도 농어촌발전상의 부문별 수상 조건 및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생산혁신: 식량작물, 원예특작, 축산, 수산, 임업, 친환경 분야에서 생산기반 조성, 생산기술 혁신, 품질 향상, 친환경농업 확대 등을 통해 농어가 소득 향상 및 농어업여건 개선에 기여가 큰 개인 혹은 단체
- 유통혁신: 농수산물의 유통, 가공, 수출 분야에서 유통 및 가공기술 향상, 새로운 유통 경로 개척, 조직화 도모, 브랜드 창출 등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 및 충남 농산물 가치 증진에 기여가 큰 개인 혹은 단체
- 먹거리혁신: 로컬푸드, 학교급식, 공공급식, 식생활교육 분야에서 지역 내 농식품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좋은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에 기여가 큰 개인 혹은 단체
- 지역혁신: 마을만들기, 도농교류·농어촌체험,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농촌복지 분야에서 마을 활성화, 농어민의 삶의 질 개선,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증진에 기여가 큰 개인 혹은 단체
- 인력혁신: 농어업교육, 청년농어업인, 여성농어업인, 귀농·귀촌, 다문화가정 분야에서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사명감과 근면함으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가 크고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귀감이 되는 개인 혹은 단체

● 충남도 농어촌발전상의 수상 원칙

- 수상 대상: 부문별 공적이 뛰어난 개인을 원칙으로 하되 단체 시상 시상의 경우 수상공적과 관련해 실질적 업무를 담당한 팀(최소 단위 조직)을 수상 대상으로 선정함.
- 농어촌발전대상: 5개 부문 11명 수상자 가운데 공적이 뛰어난 1인 혹은 1개 단체를 대상 수상자로 선정함.
- 5대 부문 11명 수상자를 원칙으로 하되 공적사항에 따라 추가 혹은 감소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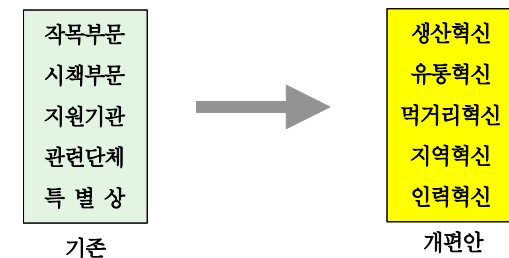
● 충남도 농어촌발전상 명칭 변경 검토 필요

- 현재 충남도 농어촌발전상은 타 지자체의 농어업대상, 농어민대상 등과 비교해 다소 폭을 넓힌 면은 있지만 내용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임.
- 충남도는 타 지자체와 달리 2011년 민선 5기부터 3농혁신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이러한 정책은 민선 7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 본 연구에서 시상 분야를 충남도 3농혁신 정책의 주요 방향과 연계해 설정한 만큼 기존의 “충남도 농어촌발전(대)상”을 “충남도 3농혁신(대)상”으로 개편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충남도 ‘3농혁신’은 2015년부터 개척된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을 통해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농어업·농어촌정책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05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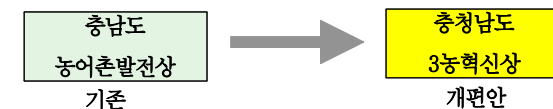
● 농어촌발전상의 시상 부문은 기존과 동일하게 5대 부문으로 설정하되 농정의 대외적인 여건 변화와 충남도 3농혁신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발양을 위해 시상 부문 개편

- 기존의 작목, 시책, 지원기관, 관련단체, 특별상 등 5대 부문에서 향후 생산혁신, 유통혁신, 먹거리혁신, 지역혁신, 인력혁신 등 5대 부분으로 개편



<그림 2> 충남도 농어촌발전상 시상 부문 개편안

- 시상 부분이 위와 같이 5대 부문으로 개편될 경우 기존의 “충남도 농어촌발전상”도 “충남도 3농혁신상”으로 명칭 변경 추진



<그림 3> 충남도 농어촌발전상 명칭 변경안

● 농어촌발전상의 5대 시상 부문의 수상 내용과 시상자 수(점)는 다음과 같음

- 생산혁신: 식량작물, 원예특작, 축산, 수산, 임업 등 분야 개인 혹은 단체 3명(점)
- 유통혁신: 유통, 가공, 수출 등 분야 개인 혹은 단체 2명(점)
- 먹거리혁신: 로컬푸드, 학교급식, 공공급식, 식생활교육 등 분야 개인 혹은 단체 2명(점)
- 지역혁신: 마을만들기, 도농교류농어촌체험,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농어촌복지 등 분야 개인 혹은 단체 2명(점)
- 인력혁신: 농어민교육, 청년농어업인, 여성농어업인, 귀농어·귀농어촌, 다문화 등 분야 개인 혹은 단체 2명(점)

● 농어촌발전상 심사 과정에서의 개선 사항

- 농어촌발전상 관련 공적 심사에서 정량화된 양적 평가는 가급적 줄이고 심사 대상 후보자의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소신과 성과 그리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발전해 가는 활동과 성과에 더 가중치를 부여함
- 이를 위해서는 행정과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심사 대상 후보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심사 대상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강화해 본상의 권위를 확보해 나감.

참 고 자 료

충남도(2017), 3농혁신 3단계 추진계획(2019~2022).

충남도(2017.8), 「제25회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수상자 추천 및 시상 계획.(내부자료)

충남도(2017.10), 「제25회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후보자 평가기준표.(내부자료)

충남도(2017.10), 「제25회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후보자 현지평가 계획.(내부자료)

충남도(2017.11), 「제25회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내부자료)

대산농촌재단: <http://www.dsa.or.kr/>

한사랑농촌문화재단: <http://www.myhansarang.org/>

광주데일리뉴스(2017.11.12): “전남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김포시청 홈페이지(2018.07.04): “제20회 경기도 농어업 대상 선발”

신아일보(2017.11.13.): “강원도, 제22회 농업인의 날 ‘농어업대상’ 개최”

쿠키뉴스(2017.10.16): “경북 농어업인 대상 11명 선정”

한국시민뉴스(2017.11.13): “2017년도 강원도 농어업대상 및 기업형 새농촌 우수마을 시상식 개최”